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41. 시편 97편

<기관별 찬양대회>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9장 기 도 / 2여 회장 남정옥 권사

성경봉독 / 시편 69:30~31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 전종남 목사

(Offer Praise That Pleases God)

■ 기관별 찬양대회

인도: 권유진 목사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심상현 목사

찬 송 / 20장, 285장

성경봉독 / 출애굽기 3:1~10

말 씀 /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 심상현 목사

(Take Off Your Sandals Before the Holy God.)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호세아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권유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10월	1부	2부
윤진태 안수집사	윤결태 장로	우말순 권사	안내	강현주	이대기 박선진 김정순
			헌금	김신영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최인숙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복례 김승규(차정근) 노상현(이정숙) 오진솔 윤태향 이상혁(송미숙) 임진수(정해순) 최산기(김숙자) 황하연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복례 김승규(차정근) 김영화 노상현(이정숙) 박삼강자(가정) 심상현 양락석(우말순)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이대기(박선진)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임진수(정해순)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산기(김숙자) 최환철(이동순) 홍우표(윤명란) 무명(1명)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월삭감사: 연윤희 *자녀장례감사: 홍우표(윤명란)
선교헌금	김복례(권사자녀) 박삼강자(가정) 이대기(박선진) *셋교교회 성경구입: 최차순
구제헌금	이양매 *구역헌금: 1,4 구역 *부서헌금: 유초-종교
교육헌금	김복례 김정순 이대기(박선진) 이상혁(송미숙) 임진수(정해순)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10.4.)

내 가족을 예수님께로 (요1:40~42)

전 종 남 목사

우리가 맛 집이나 멋진 경치 같은 <좋은 것>을 발견하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음의 소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뒤, 형 시몬을 찾아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요1:40).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족 전도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변화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로 변화되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요1:41).

안드레는 먼저 형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연락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전도의 중심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입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과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한 장기 결석한 성도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와 함께 진심 어린 초청을 전해야 합니다.

3.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되, 변화는 주님께 맡기시다(요1:42).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주님께서는 그를 게바(베드로)라고 부르시며 변화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초청한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한 번의 초청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돌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심령의 변화는 주님께 맡기며, 가족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을 ‘가족 초청의 날’로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장기 결석한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시다.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542장

대표기도 / (1부) 박영미 집사 (2부) 윤성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누가복음 7:1~10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 전종남 목사

(Faith That the Lord Commends)

찬 송 / 545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